

<2010년 12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>

1. 웃는 모습으로 찍어 보낸 사진만 보고 그 생명을 관리하면 안 된다.
그가 실제 삶 속에서는 고통 속에 있어도 사진은 웃고 있기 때문이다.
사진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.
2. 수시로 교통해야 알 수 있다.
3. 잘 있다 해도 사람은 지도자에게 자기 약점을 안 보이려 숨긴다. 그러다가 어느 날에 쓰러지고 넘어가 버린다.
4. 관리할 때는 그 생명이 처음처럼 잘 있는지 보고, 처음같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점점 더 이상적으로 관리해야 된다.
5. 처음처럼 있는지 보고, 처음처럼 있지 않고 변한 자는 관리해야 될 생명이다.
6. 지도자는 친하면 친할수록 자기 옆에 있는 자를 관리해 줘야 된다.